

차암련 회향에 듣는다

복지불사로 호남불교 중흥

전북불교총연합회 도영스님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가꿔 호남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350여 사암의 연합체인 전북불교총연합회 회장 도영스님(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은 불교문화의 바탕으로 한 다양한 봉축행사를 통해 지역불교계의 단합은 물론 호남불교 활성화에 힘써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21일 전주시내 구 한진고속역 주차장에서 열리는 기원담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단위사찰별 법요식으로 펼쳐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꾸며진다.

문화행사로는 22일 연합합창제(전북학생회관 공연장), 25일 연등제(35사단 세병교회)에 이어 28일 청소년 연등축제(객사)와 등만들기 대회(난장 및 객사), 거리 관불식, 사경대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는 각 사찰별로 양로원,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벌이고 전주·군산교도소와 소년원, 9군단 예하부대 등에서 위문봉화를 거행한다. 특히 운전기사불자회와 불비나산악회는 객사 앞에서 염주 3천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도영스님은 1986년 9월 10일 창립 이래 봉축행사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및 자선행사, 교도소 교화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쳐온 연합회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를 비롯 단오축제와 전북불교예술제 개최,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의 운영, 모악산 살리기 캠페인, 성교육·낙태금지 서명운동 등 내부적인 단합을 기초로 대사회적인 문화·복지·환경·생명불사로 불교계의 역할을 회향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 불교문화센터인 전북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99년 노인 무료식당과 경로당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및 노인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도 지역 사회에 구체적인 회향이 될 수 있는 포교사업을 구상한데 따른 것이다.

도영스님은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복지사업이 지역 사회의 주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복지불사를 통한 호남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있다.

98년 전북불교회관이 조계종 전법도장으로 지정되는 등 활발한 포교사업을 펼쳐 온 도영스님은 "지역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전주불교방송 건립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단 및 사찰간의 단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회원 사찰들과의 유대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봉축행사 주민축제로 승화

전주불교방송 건립도 추진

문화행사로는 22일 연합합창제(전북학생회관 공연장), 25일 연등제(35사단 세병교회)에 이어 28일 청소년 연등축제(객사)와 등만들기 대회(난장 및 객사), 거리 관불식, 사경대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는 각 사찰별로 양로원,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벌이고 전주·군산교도소와 소년원, 9군단 예하부대 등에서 위문봉화를 거행한다. 특히 운전기사불자회와 불비나산악회는 객사 앞에서 염주 3천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도영스님은 1986년 9월 10일 창립 이래 봉축행사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및 자선행사, 교도소 교화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쳐온 연합회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선암사 성보 1800점 한자리

23일 박물관 개관...의천스님 진영 등 전시

태고종 사찰로는 처음으로 순천 선암사에 성보박물관이 생겼다. 태고종립 선암사는 성보박물관(관장 지허 선암사 주지)을 완공해 23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는다.

지난 98년 12월 기공해 2년여 만에 완공된 성보박물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14평으로 국비 및 시도비, 사찰부담 등 총 16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

선암사 박물관에는 국가지정 보물 2건 4점, 지방유형문화재 3건 5점 등 약 1800여점의 탕화, 조각, 공예, 전적, 경판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성보들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대각국사의 의천스님의 진영, 민화풍의 환월당 스님 영정, 추사 김정희의 제안이 있는 해봉당 스님 영정을 비롯 27명의 선암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의 진영과 의천스님의 금란 가사, 선암사 탕판



성보 18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선암사성보박물관이 23일 개관한다. 선암사성보박물관 내부 전시장 모습.

에서 발견되어 보물 955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사리구,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1702년에 조성된 '과거칠발과 53불탱화' 등은 선암사가 자랑하는 성보들이다. 관장 지허스님은 "첨단시설을 갖춘 성보박물관이 신속 개관됨에 따라 그동안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장유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면서 "수집 보존 연구 활동 이외에도 불교문화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61)754-6062 이경숙 기자



18일 상공면에서 본 춘천불교회관의 골조. 원래는 삼운사 주지 월도스님.

춘천 최대 불교회관 생긴다

삼운사 2003년 초 완공

대웅전·도사실 등 갖춰

춘천지역 최대의 종합불교회관이 들어선다. 천태종 삼운사주지 월도스님은 18일 불교회관 골조공사를 마치고 상량식을 거행했다.

삼운사는 70년 10여 가구의 소모임으로 출발, 30여년만에 춘천지역 최대의 사찰로 성장했다. 5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초 완공할 예정인 불교회관(4층)은 연면적 1200평 규모로 종무소와 신행단체 사무실 유치원 도사실 소강당 요사채 등의 용도로 쓰인다. 특히 2000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웅전에는 불단 앞에 무대를 설치해 공연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체장애인과 노인

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전용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주지 월도스님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강당을 지역의 문화단체에 개방할 계획"이라며 "집체된 춘천지역 불교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운 기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개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오는 5월부터 5개월 과정으로 '제1기 불교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부산불교회관에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 불교사상과 역사, 문화, 신행은 물론 비교종교와 종교사회학, 불교교육과 복지, 불교와 과학, 현대사회와 불교, 지도자론 등이다.

거조암 독거노인 후원

경북 영천시 청동면 신원리 은해사 거조암(주지 돈명 사)이 지역 내 홀로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꾸준히 보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거조암은 지난 1월 청동면내 혼자사는 노인과 경로당에 쌀 80kg들이 11포대와 난방용 기름 11드럼(110만원 상당)을 전했다. 지난해에도 면내 혼자 사는 노인 6명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 등 11가구에 쌀 11포대, 청동면 경로당 11개소에 사랑과 빵 50만원 상당을 선물했다.

거조암은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신도들이 구입하는 초와 향, 열쇠고리 등 판매수익금 전액을 혼자 사는 노인과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Avatar Center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quot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연꽃 향기 감도는 제주 법화사

구품연지 복원...내달 7일 연꽃심기 축제

천년고찰 법화사(주지 시몽)의 구품연지가 연꽃으로 장엄되어 제 모습을 찾게 됐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승제는 지난해 기공식을 가졌던 구품연지 복원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7일 오후 2시 법화사 구품연지에서 제1회 연꽃심기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구품연지의 옛 정취를 되찾아줄 연꽃 공양을 받고 있다.

제1부 문화행사, 제1부 법요식, 제3부 연꽃심기 등으로 진행되는 이날 축제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장영신의원, 김태환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김재철 월여협회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서방정도 구품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연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품연지의 연꽃은 진흙속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피우는 연꽃의 상징과 함께 과거 법화사의 고아한 자태를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천500평의 구품연지에 1천여 뿌리가 심어지면 연꽃이 만개하는 오는 7·8월이면 구품연지는 연꽃의 그윽한 향기가 가득한 옛 모습을 찾게 된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중창되기도 하는 등 육지부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지난 82년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법화사에 4천여평의 구품연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064)738-5225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Tongjong' (토종) ginseng products. Features a large image of ginseng roots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domestic ginse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Ogapi' (오가피) products.

Advertisement for 'Xianxiangsuoyuanxiang' (現像所願香) incense. Features large calligraphic text and images of incense burners.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incense for health and spiritual well-be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Fuhao' (富好) products.